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 호 조선인민군 해군에 정식 취역



조선

2026 7

(844)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 2 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12 Ⅱ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대회 성대히 진행
- 16 Ⅱ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1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 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22 Ⅱ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취역식 성대히 진행
- 2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3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3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상반기년도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 38 Ⅱ 조종친선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불멸할것이다

특 집

- 56 Ⅱ 포전길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기념편집

- 62 Ⅱ 승리전통교양의 거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소 식

- 70 Ⅱ 조선소년단창립 80돐을 뜻깊게 경축

오늘의 조선

- 72 Ⅱ 지방건설에 이바지하는 마감건재생산기지
- 76 Ⅱ 강동지구에 펼쳐진 전변의 모습
- 82 Ⅱ 부전호반의 산골마을

표지: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조선인민군 해군에 정식 취역
 뒤표지: 칠보산의 천불봉
 편집: 변일진, 김규성, 리금주, 조령, 조효성



22



38



62



70



7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제들과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관건적인 2026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하반기도 사업중심과 투쟁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건설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는데서 절실한 현안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지도적기관 책임일군들, 중요공장, 기업소 당, 행정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주요지휘관들이 참가하는 확대회의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전원회의에서 상정토의된 의정들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중간총화에 대하여
2. 석탄공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시킬데 대하여
3. 시, 군인민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4.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반기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당과 국가의 중대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석탄공업부문의 기술적, 문화적갱신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대책들이 반영된 보고와 토론들을 청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이 변혁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석탄공업부문에 남아있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는



문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성과적완수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전망적발전을 위한 차기 중장기계획수행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문제이며 우리 당이 탄부들과 한 약속이고 지체없이 전개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부문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혁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방향적 문제들을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현 단계에서 석탄공업 발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시하고 힘을 넣어야 할 과제는 탄전의 주인이며 생산의 담당자인 탄부들의 살림집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탄광 마을을 개변하는 사업은 온 나라 농촌살림집들을 개변 시키는것 못지 않게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사업이며 지방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새로운 영역인것만큼 처음부터 잡도리를 크게 하고 면밀한 작전과 준비를 선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를 위해서는 탄광지구건설지휘부를 중앙과 도들에

강력히 조직하고 설계와 시공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설비와 자재, 수송보장과 같은 준비사업을 착실히 하여 명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건설투쟁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혁명의 년대마다 고귀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묻어 온 탄부들을 위하고 석탄공업전반을 3대혁명화하는 중대 공정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탄광지구의 특성과 현대성, 선진성의 요구에 맞게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의 설계를 잘할데 대한 문제, 천성청년탄광을 현대화된 표준 탄광으로 꾸리고 이 지구를 탄광문화의 새로운 본보기로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이 사업의 성과적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시, 군인민위원회들이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지역별로 힘있게 주도할수 있게 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연하게 세우고 실천적요구에 맞게 해당 권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연구한 정형을 청취하고 심의하였다.



본 전원회의는 심의에 제기된 대책적문제들이 당중앙의 정책적의도와 당적원칙에 부합되게 연구작성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동지를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할것을

본 전원회의에 제의하시였다.

공화국헌법 제6장 제90조에 근거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권능행사에 따르는 김정은동지의 간부조동제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당 및 국가정책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들을 밝힌 김정은동지의 중요결론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5개년의 전망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새 단계의 발전방향과 계획



목표를 확정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집행으로 총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을 조직지도한 제9기 당중앙위원회의 상반기기간 사업정형과 사회주의건설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개괄하시었다.
특히 당대회결정에 호응해나선 우리의 로동계급과 청년들의 격양된 열의와 집단적인 혁신이 오늘의 새로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 정치국회의 진행

발전국면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것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지금 강인한 의지와 견인 불발의 투쟁으로써만 헤쳐나갈수 있는 초행길을 개척하고있으며 새 전망목표달성을 위하여 힘차게 시작을 댔을 때 우리의 투쟁은 이제 하반기기간 용기와 전력을 다해 올해 계획한 과업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라야 비로소 의미있는 첫 성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제9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새 출발을 할 때처럼 충천한 투쟁기세와 고도의 분발력을 견지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국가방위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적 립장을 재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국주의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우리 혁명의 특수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조성된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하여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자위적억제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시켜나갈것이라는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대적투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련합전선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해나가기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오늘의 이 복잡한 정세와 엄연한 지정학적현실을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또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힘이자 곧 국권이고 국위이라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강한 힘에 의하여 철통같이 담보되어 왔고 앞으로도 불변할것이라고,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는 수정할것도 보충할것도 없으며 이는 우리 당의 장구한 반제투쟁사가 내린 총적결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 사상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을 당사업의 근본 책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사업방법에 의한 지도로, 방향적, 방법적지도로 확고히 전환시켜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인 올해 투쟁과업의 성과적 완결을 담보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정당하고 성스러운 리상의 실현을 위해 항상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한해한해가 귀중하고 그 한해를 이루는 달들과 날들이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에로의 긍지높은 로정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진함없는 복무정신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아낌없이 쏟으며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지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 정치국회의가 6월

22일에 소집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부문별협의회의들에서 집체적으로 거처 심의에 제기한 건설적인 의견들과 중요대상 건설관련에산심의조의 사업보고를 검토하고 결정서 초안들을 최종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석탄공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데 대하여》, 《시, 군인민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를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대회 성대히 진행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미래이고 희망인 학생 소년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조선소년단이 영광넘친 계승과 장성의 여든번째 년륜을 청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기고있다.

당과 정부, 인민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조선 소년단창립 80돐 기념대회가 6월 6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대표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고 소년단넵타이를 매여드리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온 나라의 축복속에 창립

80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소년단원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이 영광의 국기를 게양 하였다.

아버지원수님께 소년단대표들이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다함없는 축원과 계승의 맹세가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올리였다.

기념대회 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동지가 하였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자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동무들!
오늘은 6.6절, 동무들의 명절입니다.

우리 인민의 귀한 아들딸들이고 이 나라 조선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지금 온 나라가
창립 여든돛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습니다.

이처럼 청신하고 활기넘치는 동무들의 모습을 바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을 보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서고 후대들이
더 행복하고 부럽없이 잘살기를 바라면서 더 많이
창조하고 더 힘껏 건설하는것이 이 나라가 부강번영
해가는 로정이고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이 쌓아가는 지식의 높이만큼, 동무들이 건강
하여 튼튼하게 자라는것만큼, 동무들의 가슴속에
서로 돕고 이끄는 마음이 커지는것만큼 우리 나라가
강해지고 온 나라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

웃음이 넘쳐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무들은 장차 이 나라를 곳곳이 떠메고나가야
합니다.

당부하건대 부디 모두 앞지들 말고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학업에 열중하며 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어느날보다도 정말로 기쁩니다.

바로 동무들에 의해서 우리 조국이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기때문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

모두다 조선의 아들딸들답게 씩씩하게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자애에 넘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소년단원들의 뒤편
오르는 감격이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분출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이어 새세대들의 결의행진이 진행되었다.

후대들의 꿈과 희망, 끝없이 창창할 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아버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갈 전체
소년단원들의 굳은 결의가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되어
6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쳤다.

해마다 6.6절을 온 나라가 기쁨의 명절로 기념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소년단원들의 다함없는
고마움이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의 노래합창
으로 울려퍼지는 속에 기념대회가 뜻깊게 마감되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주체위업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나갈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소년단원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우리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6월의 조국강산에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6일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을 만나주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촬영장소에 나오시자 행복에 겨운 학생소년들의 격정이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전국의 소년단조직을 대표하여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력사도 전통도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발전행로는 우리 당의 주체적소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사회주의조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온 공지높은 려정으로 수놓아져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의 넋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혁명적인 소년조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제일 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새세대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이겨나가는 불굴의 힘과 용기를 백배하고있다고, 소년단기발을 높이 날리며 강국건설의



역군으로 성장해가는 소년단원들의 담찬 기상과 도도한 발걸음소리는 전진 또 전진하는 조국의 억센 숨결이고 양양한 전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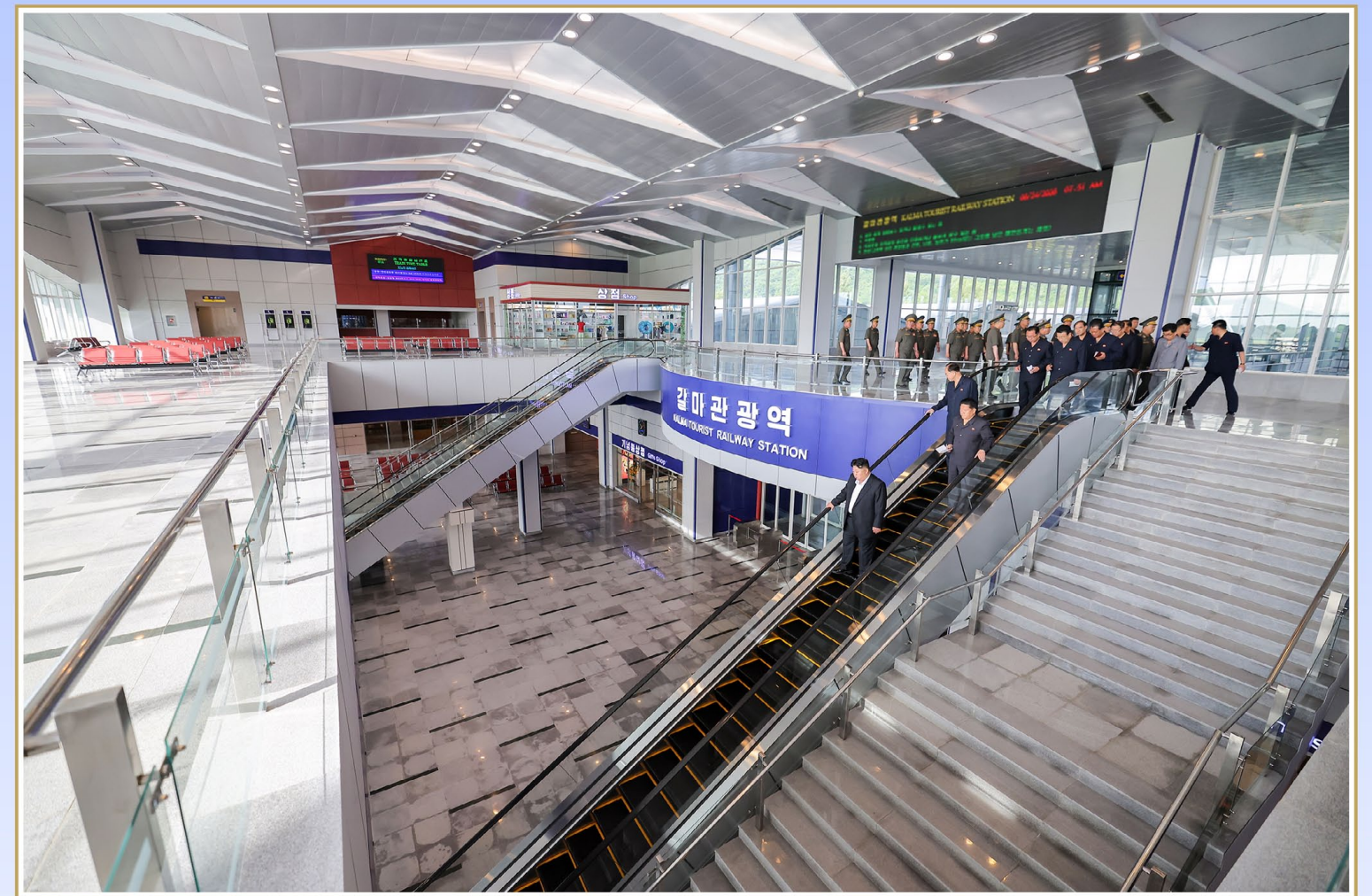
원수님께서서는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것이라고, 우리 당과 인민이 온갖 어려움을 인내하며 경이적인 변천과 진보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무거운 짐을 억척같이 떠메고 완강하게 결행해나가는것도 후대들에게 가장 강대하고 세상제일의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소년단원들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웅대한 포부와 리상, 굳센 마음과 슬기로 이 조선을 으뜸가게 떨쳐가는 쟁쟁한 혁명인재, 애국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강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미래인 소년단원들의 앞길에 언제나 행복만이 있기를 축원하시며 소년단대표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새세대들이 앞날의 주인공들로 역세계 자라나고있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24일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갈마관광철도역을 돌아보시면서 시공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관광지구를 찾는 여행객들의 편리를 도모

할수 있도록 해안관광지구가까이에 터전을 잡아준지가 엇그제같은데 불과 1년사이에 현대적인 철도역이 일떠섰다고, 건설자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역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과 실용적배치원칙, 시대적요구에 맞게 조화롭게 구성되었으며 철도역건설에서 한단계 진보한것이 알린다고,





우리 나라 지방철도역개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인식을 개변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역건설에서도 역시 고유의 기술적, 전문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기술설계와 건축설계의 합리적인 결합이 중요하다는것이 다시금 증명되였다고 하시면서 철도하부구조설계의 과학성, 기능성, 전문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역경영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용도의 료전기재들과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관광열차의 편성과 운영을 전문화할데

대한 문제 등 일련의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새로 건설한 응급치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응급치료소 의료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급치료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들과 설비들의 효율적인 정상가동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응급치료소의 운영 및 의료봉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취역식 성대히 진행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이 6월 23일 남포항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취역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가 구축함 《최현》호의 취역 준비경과보고를 하였다.

선박공업상 김광일동지가 함의 인도문건을 조선인민군 해군에 인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의 취역을 기념하여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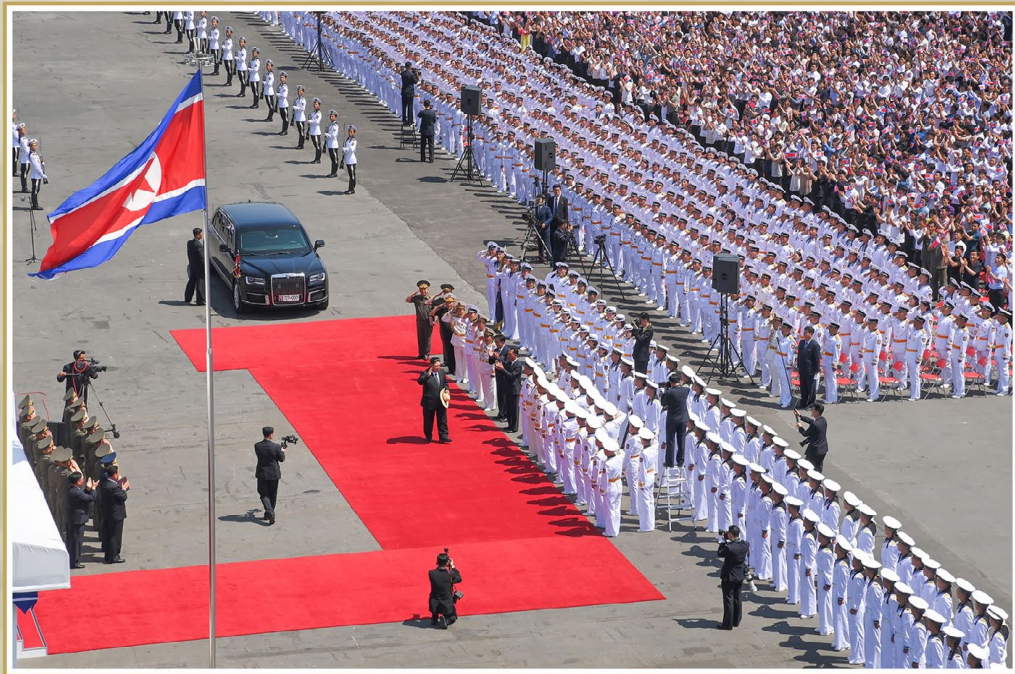
공화국의 힘과 존엄을 최강으로 다져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용지가 구절구절 비껴오고 새시대 함선공업혁명의 줄기찬 발전과 현대적해군무력의 활기찬 전망을 확신케 하는 김정은동지의 열정넘친 연설은 만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위임에 따라 구축함 《최현》호를 조선인민군 해군에 취역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를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가 랑독하고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박광섭해군상장에게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구축함 《최현》호는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에 취역하여 공화국 서해해상방위와 전쟁억제의 영예로운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구축함해병들을 대표하여 《최현》호 함장 최금철 해군상좌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취역식참가자들의 열렬한 고무와 격려를 받으며 구축함해병들이 영예의 군함기를 높이 추켜들고 함에 승선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해군기를
계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배고동이 울리고 9발의 레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구축함의 취역을 상징하는 해군기가 엄숙히 계양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에 오르시였다.

취역식 첫 출항을 앞두고 최고사령관동지를 또다시
함에 모시는 무상의 영광을 지닌 해병들의 끝없는
영예와 열광이 구축함을 휩싸안았다.

김정은동지께서 함에 오르신것을 환영하여 함장이

영접보고를 정중히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수와 함미갑판에서 구축함
해병들을 만나시였다.

신성한 사명과 크나큰 믿음을 안고 함을 인도받는
해병들에게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기념쌍안경이
수여되였다.

위임에 따라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가 구축함
제1부함장에게 쌍안경을 수여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로써 조선의 첫 구축함이

조국의 바다에 자기의 군적을 올리고 국가의 해상
주권과 권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성스럽고 중대한
사명수행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새시대 무력
건설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구축함의 취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핵심군종으로서의
해군의 위력이 비상히 장성강화되고있는 현실에 대한
명백하고도 힘있는 실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힘이자 국권이고 국위이며
군사력이 강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할수 있다는

우리 당의 지론에는 추호의 변색도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바다로는 그 평안과
영예를 지켜줄 위력한 전함들이 련이어 진출하게
될것이며 적들의 침략위협을 제압하는강력한 실력
행사로써 우리 국가의 안녕은 더욱 굳건해지고 공화국
해군의 존엄과 기개는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최현》호가 백전로장의
성함을 아로새긴 전함답게 창군세대의 위대한 정신과



무쌍한 용감성, 백승의 전 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조국수호의 항로에 승리의 항적만을 새겨가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면서 구축함해병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해군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구축함의 전체 지휘관, 해병들은 당중앙이 정해준

침로를 따라 충성과 위훈만을 새기며 영웅적해군의 정신력과 무비의 전투력으로써 공화국주권수호의 가장 책임적인 전장을 관리하는 무적함대의 기함이 될것을 김정은동지께와 조국과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에서 내리시여 취역식에 초청된



해군제대장령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애국적인 한생이 깃든 해군무력의 발전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려는 당중앙의 드림없는 구상을 피력하시었다.

구축함 <최현>호의 출항의식이 있었다.

구축함의 출항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울려퍼지는 속에 항만에 정박해있던 해군함선들이 일제히 축하 신호기를 올렸다.

참가자들은 구축함해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가장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형 다목적구축함 제1호함이 영웅적인 인민해군의 강대함과 불패성을 상징하는 무적의 전함으로 명성떨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며 전투적정례를 보내시었다.

이날 신형다목적구축함의 취역을 기념하여 해군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4일 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에 착수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강건》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항해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해군사령관 박광섭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김강일동지,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동지, 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명선동지와 해군 지휘관들, 함선건조부문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강건》호에 승선하시어





종합지휘소를 비롯한 여러 전투군무공간과 요소들에 대한 실태와 시험항해계획, 함무장체계들의 시험단계별 일정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함의 각이한 기동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해병들의 함운용능력을 치하하시였으며 함의 순항체제와 고속기동체제에 대하여 그 기동성이 작전상요구를 만족시킬수 있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인 함선건조공업의 발전양상과 군함설계의 구조적특징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작전임무수행조건을 충족시킬수 있게 함선조종계통을 우리 식으로 보다 세련시킬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군사주권을 책임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실질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낼수 있다고, 이는 우리 당의 변함없는 지론이고 국가방위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 해군무력을 핵전쟁

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수 있는 역량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임의의 시각에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집단으로 급속히 장성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당이 새로운 5개년국방발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으로 간주하고있는 문제이라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9차대회가 승인한 해군현대화를 위한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수중비밀병기들의 개발과 생산, 1만t급구축함건조를 비롯한 앞으로의 방대한 함선무력강화계획들이 신뢰성있고 강위력한 국방과학연구집단과 자립적조선공업그리고 힘있고 지혜로운 군수로동계급에 의하여 반드시 관철될것이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선 및 무기체계연구관련기관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집단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감과 고도의 책임감을 안고 구축함의 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해군에 취역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하시면서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시험들에서는 갱신형 240mm24관식방사포무기체계의 전투적특성과 전술 탄도미싸일의 특수사명전투부위력, 155mm자행평곡사포 사거리연장탄의 명중 정확성을 분석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25일 국방발전 5개년목표수행을 위한 포 및 미싸일무력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국방과학연구기관들에서 조직한 중요무기 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시험들에서는 갱신형 240mm24관식방사포무기체계의 전투적특성과 전술탄도미싸일의 특수사명전투부위력, 155mm 자행평곡사포 사거리연장탄의 명중정확성을 분석평가하였다.

갱신형 24관식방사포무기체계는 화력복무체계의 모든 요소들이 자동화되고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사거리는 90km로 증가된 개량형군단급화력체계이다.

전술탄도미싸일 특수사명전투부 역시 적의 비행장, 항구, 전력시설을 비롯한 중요표적들의 치명적인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155mm자행평곡사포에 적용하는 65km 사거리연장포탄의 시험도 중대한 군사적의의를 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동행한 지도간부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소개한 국방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줄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사단—군단화력체계들의 시험은 남북국경의 화력태세변화에 관한 우리 당의 무력건설 방침과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의 3대원칙실현에서 이룩한 커다란 기술적진보를 증명하고 확신할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된다고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자위국방로선은 고도로 창의적인 개발방식에 의거하여 독보적인 발전의 길을 주저 없이, 멈춤없이 개척해나가는 우리의 쟁쟁한 국방과학인재들과 국방과학기술력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철저한 힘의 우위로써만 국권을 지키고 생존 그 자체를 보장할수 있는 오늘의 국제형세는 방위력강화 사업이 왜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제1의 전략적인 사업으로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수사적설명도 구태여 보충할 필요가

없게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자위로선의 정당성과 우리 무력의 급진적발전의 불가역성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룽군의 포 및 미싸일무력발전이 우선적으로 중시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5개년 계획기간 달성해야 할 당면한 국방발전과업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늘 강조하는 론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자위적방위정책은 방어적수단들에 의거



하는 단순한 방어적기능의 제고가 아니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태세를 높여 대적할 적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이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군건설과 군사행동실천에서의 방어적 개념이라고 언급하시였다.

적들이 상시 불안과 두려움속에 있게 하는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행사의 중요한 결행일면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가급적최단기간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타격수단들이 갱신행으로 전부 교체장비된것을 적들이 알게 만들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의는 군사력의 갱신과 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과업들을 천명하였다고 상기하시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함에 모든 국방과학연구기관들과 군수생산기업소들이 쫓기해 나셔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강력한 포병무력을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전략적방침이라고 재삼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상반기도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2026년 상반기도 중요무기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가 상반기도 중요무기생산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고 하반기도 생산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각이한 탄도미싸일과 순항 미싸일생산능력확대를 위한 미싸일총국의 전망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 회의 심의에 제기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작전집단편성과 전투

편제가 수정되는데 맞게 그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미싸일정량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현존생산능력을 5개년계획기간내에 년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인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품질관리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제품검수공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생산 및 관리에서 나서는 일련의 지시를 내리시였다.

조중친선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불멸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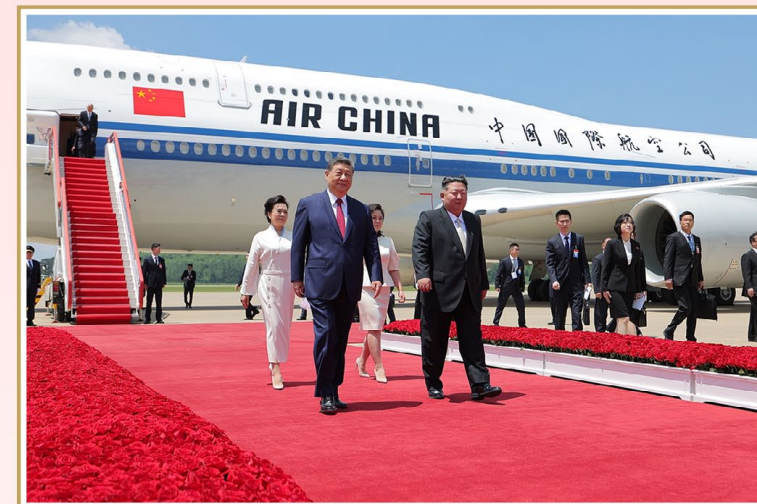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반제자주와 평화, 사회주의 위업실현을 위한 장구한 려정에서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새로운 전략적높이에서 승화발전되고있는 시기에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또다시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



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 동지를 비롯한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있었다.

습근평동지의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의 뜻깊은 상봉에 이어 습근평동지와 9개월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을 표시하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습근평동지는 7년만에 평양방문이 또다시 이루어진 소감을 피력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따뜻이 맞이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 외사사업위원회 관공실 주임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류해성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당방유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 동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정목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 왕문도동지와 그밖의 수행원들이 함께 왔다.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습근평동지의 전용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장을 나섰다.

차행렬이 지나는 순안구역과 림흥거리, 새별거리 등 연도마다에서 시민들은 우리 인민에 대한 형제적중국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습근평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 중 친 선 의 년 대 기 에 특 기 할 력 사 적 인 상 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환영하는 의식 성대히 진행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형제적인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조선인민은 최대의 국빈으로 뜨겁게 열렬히 맞이 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6월 8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중 두 나라 국기가 나뉘는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명예기병대, 국방성중앙군악단이 정렬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재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성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가 참가하였다.

평양시민들과 청년학생들, 어린이들이 손에손에 두 나라 국기와 꽃송이들을 들고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의식장소에 나오시었다.



습근평동지가 탄 전용차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에게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을 소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해성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당방유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 동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정목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 왕문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측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습근평동지에게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습근평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환영의식이 끝나자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습근평동지는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군중들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자기의 본태를 깨끗이 지켜온 조종친선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며 새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부응하는



전략적인 확대발전으로 강력히 인도해나가는 최고수뇌분들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종최고수뇌분들께서는 군중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습근평동지의 전용차는 환영연도를 지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를 숙소까지 안내하시였다.

조종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두터운 친분과 우애의 정이 넘치는 평양상봉은 훌륭한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며 친선단결의 새 전기를 새겨나가는 조종관계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변으로 력사에 뚜렷이 기록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7년만에 평양을 방문한 습근평동지를 최대의 국민으로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총서기동지가 올해의 첫 외국방문으로 평양을 선택하고 찾아오신것은 조중친선에 대한 최고의 중시의 표시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최대의 지지로 된다고, 평양은 이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총서기동지의 이번 방문은 조중 두 나라가 자주와 정의를 위한 력사의 옳은 편에 언제나 함께 서있으며 그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속에서도 력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친선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파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국가간관계의 본보기로, 변색될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이것은 불변한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이라고 확인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김정은총비서동지가 령도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것이며 중조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훌륭한 전략적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동지와 새시대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하고 교류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건설위업과 중조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6월 8일 저녁 목란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두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갈 의지가 재확인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단순히 자연지리적으로 이웃한 름방이어서만이 아니라 사상의 공통성과 전투적우의를 초석으로 결합된것으로 하여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장구한

세월 운명을 함께 하며 단결과 협력의 뉴대를 굳게 다져 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력사와 전통을 주축로 하는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간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피력하시었다.

이어 습근평동지가 답례연설을 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중조 두 나라는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여 왔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불패의 친선이라고 하면서 혁명의 년대들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온 두 나라 인민의 위대한 친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돛이 되는 올해 중조관계는 새로운 력사적출발점에 서있으며 이번 방문기간 김정은동지와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손잡고 중조관계를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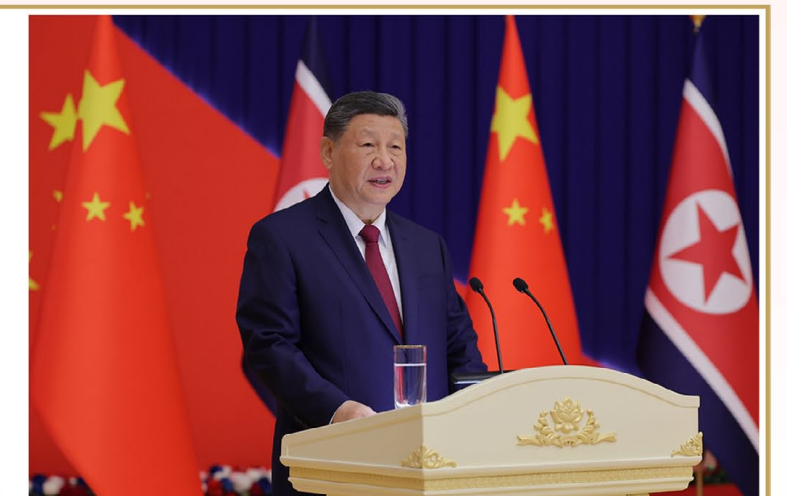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중친선관계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시종 친선과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위한 환영공연 진행



새시대 조종천선의 려정에 훌륭한 전망을 펼쳐며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위한 환영공연이 6월 8일 밤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맞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중국노래 《조국을 노래하네》, 우리 나라 노래 《빛나는 조국》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조종인민의 애국주의와

혁명성, 민족적정서로 충만된 명곡들이 다채롭고 특색있는 예술적형식으로 울랐다.

중국노래련곡 《새 세계》, 《새시대를 노래하세》는 습근평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려정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변혁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실한 고무

격려를 훌륭히 대변하였다.

공연은 종곡 《조종천선은 영원하리라》의 노래로 끝났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을 전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우의탑에 꽃바구니 진정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6월 9일 우의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우의탑에 나오시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맞이



하시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중최고수뇌분들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제국주의



무력침공을 격퇴하는 조선인민의 성전에 참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에게 참다운 국제주의 정신과 형제적우의를 안고 조선전선에 용약 달려나와 조선인민과 어깨걸고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 전후복구 건설을 성심을 다해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와 사진, 유화작품들에 대하여 소개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지원군렬사명부를 번져보면서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동지적 협조정신을 뚜렷이 과시하고 조중인민의 마음속에 친선의 고귀한 상징으로 살아있는 련사들에 대하여 회억하였다.

조중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나라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함께 싸운 나날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퇴색될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력사적 기억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중국인민지원군렬사기념 시설들을 공동으로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도덕교양을 심화시키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시고 기념식수를 하시었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6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동행하시었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교내를

돌아보았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조중 두 당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 우수한 당건설경험을 호상 깊이있게 교환 하고 진지하게 배우면서 다같이 당을 강화해나가는데서 당간부양성기관들이 응당한 역할을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용의를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 학교방문을 기념하여 함께 나무를 심으시었다.

뜻깊은 식수를 기념하는 표식비가 제막되였다.

표식비에는 《조중친선은 영원히 푸르청청하리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 심으신 나무 2026년 6월 9일》이라는 글발이 조선어와 중국어로

새겨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함께 심으신 나무와 표식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평양 출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동지를 따듯이 환송하시였다**



포전길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모두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포전길을 걷고걸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민주개혁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하시었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 가운데서 농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제일 많이

걸으시었다.

그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적인 농사리치도 밝혀주시고 알곡증산의 지름길도 마련해주시었으며 사회주의 농촌문제해결의 전망도 열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북변의 농장들과 두메산골의 농촌들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시었다.



평원군 송석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81년 9월



강서군 청산리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58년 10월

잘사는 농장은 살림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자주 찾으시고 형편이 어려운 농장은 마음에 걸리시여 자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들을 찾으시여서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다수확을 낸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 경험을 온 나라 농장들에 도입하도록 하시였으며 자신께서 몸소 저택에서 농작물을 가꾸시며 밝혀내신 과학적인 농사리치도 알려주시였다.

어느한 농장의 명예농장원이 되신 그이께서는 이곳 농장원들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시였으며 자신의 분배몫으로 받은 돈으로 농기계들을 마련하여 보내주기도 하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들 가운데 가보지 않은 곳이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농촌경리부문을 지도하기 위하여 농장들에 찾아다닌것만 하여도 수십만리는 될것이며 농장원들을 만나 담화한것만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69년 10월



새로 만든 모내는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74년 5월



정평군 봉대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74년 6월

하여도 수만명이 될 것이라고 회고하시였다.

오늘 나라의 모든 농장들에 도입된 과학적이며 집약적인 주체농법도 그이께서 현지지도과정에 구상하시고 창시하신 농법이다.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온 나라의 포전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1993년 8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먼길을 달리신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이른새벽부터 정오가 될무렵까지 여러 군의 5개 농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1994년 6월에도 농업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이 나라 포전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신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못잊는다.

글 박경철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87년 9월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94년 6월

승리전통교양의 거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53년 8월 17일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에 꾸러졌다.

그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2돛을 맞으며 보통강반으로 옮겨왔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돛을 맞으면서 이곳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 웅장하게 건립되었다.

2013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대기념비적 건축물로, 승리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새롭게 훌륭히 꾸러졌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물, 혁명사적자료들,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본관과 야외무기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본관에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부터 제4계단시기관, 근위부대관, 조국해방전쟁승리관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전시관들이 있다. 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이론, 탁월한 령군술과

고매한 풍모를 보여주는 혁명사적물들과 혁명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전승세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보여주는 전쟁시기의 신문자료들과 사진자료들, 전투기술기재들, 인민군 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과 생활을 보여주는 사관, 반경화 등이 있다.

이곳에는 전쟁도발자인 미제의 침략 책동과 만행, 패전상을 폭로하는 자료들도 전시되어있다. 뿐만아니라 기념관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관과 정규무력건설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무력 령도관도 꾸려져있다. 기념관의 교양마당에는 조국해방



대전해방작전 대형전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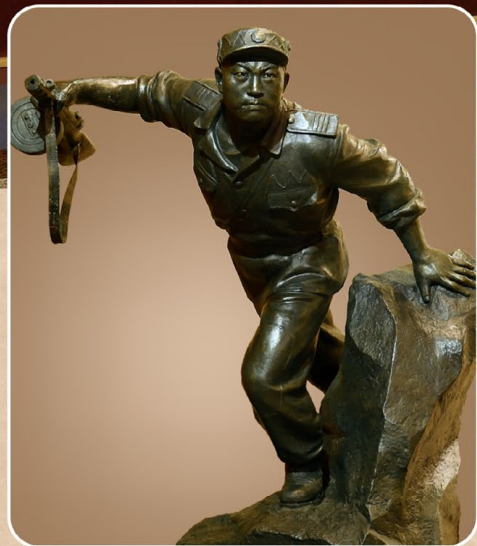
군종, 병종, 전문병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전하는 사진자료들

인생은 추억의 왕좌에
세겨진 자음인가
흔들린 천화의 인격을
외로워진 흔적인가
장군님 바라서 승전의 그 길
적사육에 세기며
내 한생 다 바쳐 지키여왔네
이러니 내 조국을

노래 《나의 한생》 중에서



공화국영웅 리수복을
형상한 조각



공화국영웅 조군실을
형상한 조각



공화국영웅 강호영을
형상한 조각

공화국영웅홀

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과
전쟁시기 주요전투와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10개의 부주제
군상들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승리
전통교양의 고귀한 재보이다.

사진 리평렬, 글 김선경

로획무기전시장



보통강반에는 1968년 1월 23일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전시되어있다.





조선소년단창립 80돐을 뜻깊게 경축

조선소년단이 자기 발전의 자랑스러운 행로에 여든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는 6월의 조국강산에 소년단원들의 기쁨과
랑만이 차넘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80돐을 맞으며 전체 소년단원들은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행사참가자들에게 배려하여주신 선물을 전달

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각 도(직할시)들에 나간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 시,
군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이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
일하기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는 소년단원들을
만나 축하해주었다.

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과 학교소년단조직들에서
소년단총회, 소년미풍열성자회의, 소년단원들의 자랑
이야기모임 등이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을 비롯한 문화



조선소년단창립 80돐을 맞으며 《소년》호
트랙토르 증정모임 진행

행사들이 진행되여 명절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6.6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학생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이
무도회장장에도 넘쳐났다.

각지 학원들과 학교들에서 바줄당기기, 발목매고달리기,
룡구경기 등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80돐기념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행사참가자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80돐 기념행사참가자들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참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광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찰하자!



지방건설에 이바지하는 마감건재생산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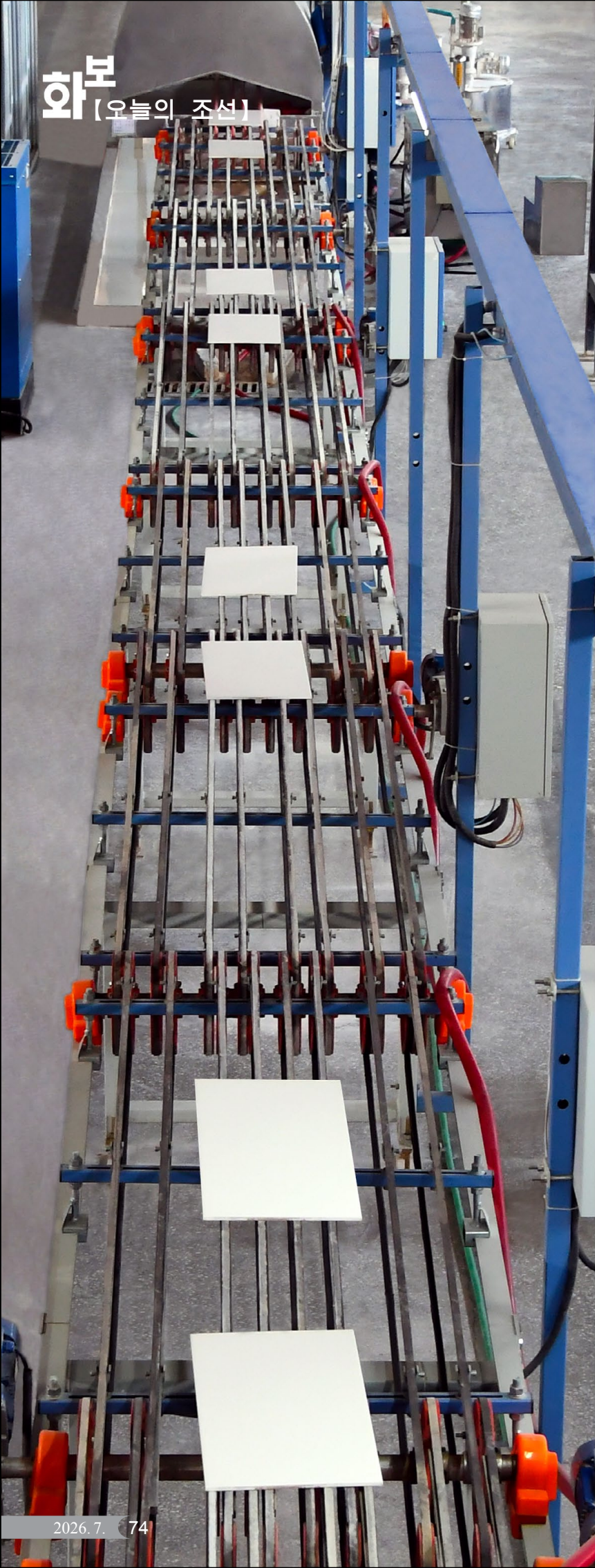
- 경암타일공장에서 -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경암타일공장이 있다. 마감건재를 자급자족하며 건재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2024년 12월에 준공된 공장에는 각종 타일과 위생자기생산에 필요한 능률높은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 있다.

년산 수십만㎡의 타일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에서는 각종 타일들이 대량생산되고 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마감건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더 많은 마감



공장에서는 지방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타일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있다.



건재들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운 공장에서는 단계별, 공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현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원료확보를 선행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또한 자기 지방의 원료와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품질이 담보되는 타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타일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강진성

공장에서 생산한 건재품의 일부





강동지구에 펼쳐진 전변의 모습

평양시의 동쪽교외에 강동군이 자리잡고있다.
2년전 굴지의 남새생산기지인 강동종합온실농장이
숫아난 이곳에 지난해에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종합봉사소, 병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강동지구에 펼쳐진 전변의 모습은 우리당 지방발전
정책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에는 근로자들의
로동의 희열, 창조의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새 공장의 주어진 긍지를 안고 근로자들은 더 많은 제품

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질을 높여나가고있는 그들이다.
이 과정에 강동군식료공장, 강동군일용품공장, 강동군
옷공장의 제품가치수가 늘어나 지역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다기능화된 문화생활거점으로 일떠선 강동군종합
봉사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도서관과 영화관, 종합상업구 등이 있는 이곳에서 과학

기술보급은 물론 문화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도
받을수 있다.
지역의 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꾸려진 도서관에서는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군의 발전을 떠메고나갈수 있는 인재들로
준비해가고있다.
상업봉사시설들과 급양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진 종합
상업구의 훌륭한 봉사환경과 이곳 봉사자들의 친절한
봉사는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낸다.

각종 상품들을 구매할수 있는 종합상점에는 군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많아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미용실과 리발실에서 아름다움을 한껏 가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시종일관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다.
뿐만아니라 새 병원에서 선진적인 의료상방조를
받으며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고있는 강동군인민들이다.
지금 강동군의 인민들은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생활력을 체감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우리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강동군종합봉사소는 강동군인민들의 문화생활거점으로 되고있다.





지방보건발전의
본보기로 일떠선
강동군 병원에서
군인민들은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강동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지역인
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되고있으며 강동종합온실농장
에서는 갖가지 신선한 남새들을 생산하고있다.





부전호반의

산골마을

- 부전군 광대농장을 찾아서 -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농촌발전의 진로따라 각지에서 농촌의 면모가 달라지는 속에 우리 나라 북부고원 지대에 자리잡고있는 함경남도의 부전군 광대농장이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부전호반의 자연풍치와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조화를 이룬 농장마을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마을의 새 모습과 함께 농장원들의 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농장원들은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농장원들은 성장이 빠르고 번식률이 높은 양, 염소품종들에 대한



선진사양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리용하면서 인공 먹이풀판도 새로 조성하였다.

농장에서는 고산지대의 자연기후 조건에 맞게 충분한 사료보장과 수의 방역대책도 철저히 세워 폐사률을 줄이고있다.

드넓은 풀판들에는 어디 가나 집짐승들이 떼를 지어 흐르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강진성





© 조선화보사 2026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 중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7-26088053834